

전남도·광양시, 이차전지 재활용 클러스터 구축 나선다

3일 전남테크노파크·포스코·SK·광양이엔에스 등과 협약 이차전지 수요 증가...리튬·니켈·코발트 등 공급망 확보 기대

전남도와 광양시가 광양에 연구기관, 관련 기업 등과 협약식을 갖고 이차전지 재활용(리사이클링) 클러스터 구축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포항, 해외에서는 중국 등과의 이차전지 재활용 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핵심 원료인 리튬·니켈·코발트는 고가인데다 특정 국가에 주로 매장돼 있어 이차전지 재활용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광양시는 지난 30일 “오는 3일 전남테크노파크,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포스코퓨처엠, 포스코HY클린메탈, SK에코플랜트, ㈜광양이엔에스, ㈜에콤 등과 광양시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양시, 전남테크노파크,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광양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매카조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공모사업 및 신

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참여기업들은 유기적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폐배터리의 전처리, 후처리 및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양극재 생산 등 폐배터리 자원 순환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 이차전지 재활용 분야 각종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류하기로 했다.

광양시 등은 우선 1단계로 지자체·민간·기업 협력으로 재활용 공장 및 광역권 수거센터를 유치하고, 2단계 광양 이차전지 전략 산업단지 구축 로드맵 수립, 3단계 재사용 생산 설비 구축 등을 거쳐 마지막 4단계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4차 산업에 대한 미래 자원과 스마트 시티 설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지역기업인 (주)광양이엔에스는 2011년 철스크랩 사업을 시작해 2022년 49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후 이차전지 재활용 사업에 진출해 오는 5월에는 관련 공정 설비 입고 및 시운전에 나서는 등 사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학범 (주)광양이엔에스 대표이사는 “이번에 구축하는 광양의 배터리 순환경제는 폐배터리 내 금속 및 양음극재의 원재료를 추출해 신규 배터리 제조에 활용,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이라며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장점이 있어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SK

등 대기업들은 이차전지 소재사업, 이차전지 재활용 사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출입이 신속한 광양항이 인접해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광양시가 이차전지 재활용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세계 이차전지 시장은 전기차 보급 관련 정책으로 연평균 21%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차전지 재활용 시장 역시 핵심 원료인 리튬·니켈·코발트 등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원료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 오염 및 탄소 배출 등의 저감 등을 배경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요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롯데케미칼 삼박엘에프티 울촌산단에 공장 착공식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30일 오후 순천 울촌산단에서 열린 '롯데케미칼 삼박엘에프티(주) 울촌 공장 착공식'에 참석, 주요 내·외빈들과 착공 발파식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5~11월 지적재산권 활용·상권 분석 등 맞춤형 교육

광주시는 “오는 2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 패턴과 수요에 맞춘 실무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5월 지적재산권 활용, 온라인 마케팅, 고객 관리 전략, 브랜딩 마케팅, 6월 클라우드 펀딩 실전, 7월 유통 판매 전략 및 유통 채널 상품 소싱, 9월 인증제도 교육, 10월 상권 및 경기 분석을 통한 업종 다각화 교육, 11월 연간 세무계획 수립 및 조세 지원제도 등이다.

광주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 링크(<https://linktr.ee/GJSEC>) 또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www.gjsec.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지원사업, 행사 및 교육소식은 카카오톡 채널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s://pf.kakao.com/_KuWxx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희망자 모집

광주시,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

광주시는 “장례식장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이내 충전 완료가 가능한 시설로, 3기를 모집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민간 충전 보조사업

자가 이미 확보한 설치부지 12기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목표물량 초과 접수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지역별 무공해 전차 브랜드사업' 등을 통해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지역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 다중이용시설 부지 소유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지를 최종 선정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설치조건은 전기차의 출입이 일정시간 가능해야 하고, 공용 충전시설 설치 부지를 보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충전시설 설치 이후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지난 30일부터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문서24(<https://docu.gdoc.go.kr>), 우편(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시청 9층 기획대기정책과), 이메일(jj9600@korea.kr)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다양한 할인·이벤트 지속...전남 배달앱 인기

'떡깨비' 회원 수 10만명 넘어 '땡겨요' 주문·매출 전달비 2배 ↑

공공배달앱 '떡깨비'가 이달 들어 기준 누적 회원 수 10만 명을 넘기고, 누적 가맹점도 1만 개소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생배달앱 '땡겨요'도 지난 3월 기준 월 주문건수와 월 매출액이 전월보다 2배 이상 오르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가 소상공인의 증가수수료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공공·상생배달앱이 1분기에도 매출 성장세가 이어짐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축제 등을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가맹점 확대 및 홍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에 집중했다. 가맹점 확대를 위해 전남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협회 전남지부 등과 협업체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추진했다. 누리소통망(SNS)과 시군 누리집 등 온라인 홍보를 펼친 결과 약 60만 명이 게시물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공공·상생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추진 중이다. 공공배달앱 '떡깨비'

는 지난 3월부터 소비자 첫 주문 할인쿠폰 지급, 더블할인쿠폰 지급, 우수·신규 가맹점과 공짜배달 가맹점 대상 20만원 상당의 지원금 프로모션을 시행했다.

상생배달앱 '땡겨요'도 지난 3월 2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연동을 시작,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최대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최대 1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먹킷챌린지 이벤트, 신규 가맹점 대상 20만원 상당의 사장님 지원금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공공·상생배달앱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및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떡깨비'는 5월 중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5% 할인이벤트, 7월 중 '떡깨비' 2주년 기념 할인이벤트를 진행한다. 로컬상품 품목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도 연내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담당 대나무 축제 기념 할인이벤트, 강진 봄꽃축제 기념 할인이벤트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프로모션도 시·군 단위로 시행한다.

'땡겨요'에서는 첫주문·재주문 시 최대 1만원 할인쿠폰 지급, 땡데이 할인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요현석 기자 chadol@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노희용 전 동구청장

“사업 발굴·문화정책 추진 힘쓸 것”

광주시는 지난 30일 광주문화재단 제5대 대표이사에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을 임명했다.

노 대표는 서류·면접 심사, 시의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문화재단을 이끌게 됐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희용 대표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지난 29일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광주시에 송부했다.

공직생활 중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 동구청장 등



을 역임하며 경영 전문성이 검증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표는 “지역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분야별 문화정책을 추진해 문화예술이 빛나는 광주,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 대표는 지방고시 1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광주시 문화수도정책관, 문화관광정책실장, 민선 5~6기 광주 동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